

申光洙의 「耽羅錄」에 나타난 제주에 대한 인식과 정서

박 용 만*

- I. 머리말
- II. 제주에 대한 인식의 층위
- III. 〈耽羅錄序〉에 나타난 당대 문인들의 인식
 - 1. 「탐라록」의 배경
 - 2. 서문 작자의 인식
- IV. 「耽羅錄」 수록 시문의 정서
 - 1. 이국적 풍물에 대한 소회
 - 2. 관료로서 사명감
 - 3. 백성의 삶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공감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제주는 신화가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다가갈 수 없었던 육지인들에게 제주는 관념적 공간이었지만 실제 제주를 경험한 지식인에게 제주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1764년 서울에서 파견되었다가 풍랑에 발이 묶여 45일간 제주에 머물렀던 申光洙에게 제주는 '갇힌 공간'이었다. 신광수가 제주에 체류하며 남긴 「耽羅錄」에는 모두 49편의 시가 신광수와 李瀾의 서문과 함께 실려 있다. 원래 신광수와 함께 간 이익, 박수희가 창화한 것이지만 신광수의 문집에는 다른 두 사람의 시는 없고 두 편의 서문과 본인의 시만 수록하였다.

신광수는 육지로 돌아온 이후 제주에서 기록한 창화록을 주위 지식인에게

*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보여 睦萬中, 丁範祖, 李玄煥의 서문을 받았다. 이외에도 蔡濟恭은 그에 대한 묘지명에서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신광수와 육지 벗들의 서문에는 제주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제주는 육지인들에게 신선이 사는 동경의 공간인 동시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기 싫은 공간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신광수에게 제주는 絕島이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孤立無援의 공간이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갇힌 공간'이었다.

개성주의 문학사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18세기 문학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주위의 지식인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주의 경험을 기록한 「탐라록」은 신광수의 제주 인식은 18세기 문학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록이 된다.

주제어 : 신광수, 제주, 탐라록, 갇힌 공간

I. 머리말

제주는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적 특징으로 인해 육지의 문인들에게 관념적 공간 인식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료 또는 유배인에게 제주는 더 이상 관념적 공간에 그치지 않았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것과 제주의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성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당시 제주는 군마를 공급하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요충지의 성격을 지녔다. 매년 봄과 가을에 도내를 순회하며 고을의 폐단을 파악하고 방어 상태를 살피는 巡歷이 중요하였다.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衡祥(1653~1733)은 영토의 끝자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역파악이 필요하였다. 이에 『耽羅巡歷圖』와 『南嶽博物』 등을 저술하여 제주의 상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조선후기 사대부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처지와 현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제주 문인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 둘째는 조정

에서 파견된 관료의 시선에 비친 제주, 셋째는 유배 간 지식인의 시선으로 보는 제주이다. 조선후기 문인들이 처한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제주는 憧憬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桎梏의 공간이기도 하며,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문인들의 서로 다른 인식을 비교한다면 피상적, 관념적 공간이었던 제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여러 층위의 인식과 감정을 살핀다면 인문공간으로서 제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제주에 대한 인식의 층위

선생[송시열]이 말씀하였다.

“젊을 적 항상 소원이, 글 읽어 벼슬하여 바닷길로 중국을 가게 되면 망망대해의 출렁거리는 풍량이 흥금을 쾌활하게 하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걸음에 이 소원을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한번 漢拏山을 올라가 보았으면 하는 것도 소원이었는데, 가는 즉시 우리에게 갇히는 몸이 되어서 소원을 이룰 수가 없겠으니 이것이 한이다.”¹⁾

1689년 원자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로 己巳換局이 일어나자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다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權尙夏가 기록한 이 語錄은 송시열이 과거에 급제하여 사신으로 중국에 가며 대장부의 흥금을 펼치고 싶다는 젊었을 적 바람을 기록한 것이다. 사신으로 중국 가는 바람과 絕島²⁾로 유배 가는 현실이 대비되지만, 그래도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다는 기대가 드러나 있다. 또 신선이 산다는 한라산을 등람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임을 한으

1) 權尙夏, 『寒水齋集』 권21, <己巳行中語錄> : “先生曰, ‘少時常願讀書決科, 得以海路朝天, 則長風破浪, 快豁心胸矣. 今行得諧此願, 幸也. 然一上漢拏山, 亦所願也, 而去作圍中之人, 無由獲遂, 是可恨也.’”

2) 許穆, 『記言』 속집 권48, 『耽羅志』 : “毛羅, 南海中小國, 幅員四百里, 海路九百七十里而遙.”

로 여겼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송시열처럼 선망하는 제주는 지식인이 보고 싶은 동경의 공간이었다.

金昌協 역시 전라도 화순의 同福縣監으로 부임하는 趙景望을 전송하며 지은 글에도 제주는 가고 싶은 공간이었다. “瑞石山은 호남의 여러 산 가운데 특별히 높고 큰데, 그 위에 오르면 한라산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중략> 서석산 정상에 올라 남해를 굽어보고 바다 속에 구름처럼 아른아른한 것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켜 ‘저것이 한라산이다.’ 할 것이니, 이 어찌 참으로 뛰어난 장관이 아니겠는가. 조공은 먼저 가서 저를 기다리십시오.”³⁾라고 하였다. 송시열이 실제 제주에서 한라산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김창협은 멀리서나마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어도 좋다는 희망이다. 이처럼 실제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바다 너머로 멀리 바라보는 것조차 동경하는 공간이 제주였다. 한라산은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이라 불릴 만큼 영험한 산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위치하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람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주 유람은 희소한 일이었기에 호기심과 동경은 육지의 다른 명승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金羲正(海隱先生文集)처럼 제주의 문인도 있지만, 제주에 대한 시문을 남긴 경우는 대부분 제주에 부임한 관원이거나 제주에 유배를 간 지식인이었다. 특히 17세기에는 전쟁 직후 민심수습을 위해 파견되었던 안무어사,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태 진정을 위해 파견되었던 순무어사 등 양난 이후 지방을 살피고자 하는 중앙의 노력으로 인하여 제주에 파견되는 관원들이 있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에 유배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⁴⁾

조선시대 육지와 차폐된 공간이었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은 주체에

3) 金昌協 『農巖集』 권21, <送趙使君(景望)率同福序> : “瑞石在湖南, 諸山特高大, 登其上, 可以望見漢挈云. <중략> 登瑞石之巔, 以臨南海, 望見海中隱隱有若雲氣者, 指而語曰, ‘此漢挈之山也, 不亦瑰特殊絕壯觀也哉. 公行矣, 且須我.’”

4) 송민경, 「조선후기 문인들의 제주명승 인식과 변화」,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2-24쪽.

따라 제주의 문인, 관료, 유배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⁵⁾ 이 중 조선후기 문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부임한 관료와 유배인의 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⁶⁾ 먼저 관리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자신이 경험한 육지와 전혀 다른 공간이었으며 유교적 文治가 미처 실현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유교적 문명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료로서 유교적 사회로 전화시키려는 책임의식이 강하였다. 그에 비해 유배인에게 제주는 기약 없는 불안과 정서적 상실감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제주는 중죄인이 부처되는 절도였으며 이에 따라 항상 죽음을 염려하는 불안의 공간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왕명에 의해 언제든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육지에 가족을 두고 온 관리나 유배인에게 제주는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자 외로운 공간이었다. 그들은 육지와 많이 다른 제주의 문화, 유교적 교화가 채 미치지 못한 곳이라는 차별적 인식으로 제주문화를 바라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고 상황적 단절이지만, 결국 자신이 익숙했던 공간을 그리워하는 또 다른 고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⁷⁾ 관료로 오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목민관의 임무가 우선이었다.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지식인이었고, 현실적인 상황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우선하였다. 육지와 다른 이질적 문화에 대한 감성적 괴리는 어쩔 수 없었지만, 목민관의 상황은 개인적 감정을 자제하고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金尙憲(1570~1652)은 1601년(선조 34) 제주도에서 발생한 吉雲節과 蘇德俞의 逆獄을 다스리고 주민을 선무하기 위한 安撫御史로 제주도에

5) 제주에 대한 인식을 제주 문인, 관리, 유배인의 세 시각으로 구분하여 탐색하는 작업은 손기범(「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영주어문』 17집, 영주어문학회, 2009)과 김새미오(「고독한 공간, 제주에 대한 제 인식」, 『한문학 논집』 37집, 근역한문학회, 2013)에서 이미 시도되었다.

6) 김새미오는 제주 문인의 경우 제주도는 '떠나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고 떠나서 그리워하는 애증의 공간'이라고 하였다(김새미오, 앞의 글, 163쪽). 그러나 제주에 대한 제주 문인의 인식은 필자가 접근하기에는 지리적, 문화적 한계가 있어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다.

7) 김새미오, 앞의 글, 163쪽.

왔다가 『南槎錄』을 지었다. 제주에 이르기까지의 노정, 제주 지역의 地誌와 관아의 위치, 산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여기에는 유배인과 달리 관리로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안무어사의 책무와 백성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民知畏吏不知親	백성은 관리를 꺼릴 줄만 알고 친할 줄 모르지만
自視千金未敢珍	천금 보기를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네..
聞說向來多枉死	듣자니 얼마 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다고 하니
可憐孤寡幾家人	불쌍하구나, 고아와 과부 몇 집이런가.

이 시는 김상헌이 金宗直의 <毛羅歌>를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이 시의 주석에는 ‘풍토 물산 같은 것은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이므로 모두 빼고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에서 김상헌은 제주 백성들의 순박한 마음과 함께 역모로 억울하게 숨진 이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불행해진 힘없는 아이와 여인들의 실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김상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주가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제주 백성의 이런 소외감을 정확하게 읽었고, 이는 관리로 부임한 그에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었다. 이런 김상헌은 제주목사가 아니라 안무어사였기에 그의 시각은 길운절의 역모사건으로 위축된 도민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데 있었다. 안무어사로서 김상헌은 관료나 유배인들과 다른 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문명을 전파하는 관료나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유배인들과 달리 제주 백성의 삶을 撫順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시는 任徵夏(1687~1730)가 지은 <濟州懷嶽詩>의 일부이다.

海上天常暗	바닷가 하늘은 항상 어둡하고
山南地益低	산 남쪽이라 땅은 더욱 낮구나.
宿春翻化蠹	봄이 되어 좀 벌레 깨어나고
新汲半成泥	새로이 물 길어도 절반은 흙탕물이라네.
飢鼠走床下	배고픈 쥐는 밥상 아래 돌아다니고
怪鳥啼屋西	괴상한 까마귀는 서쪽 지붕에서 깽깽거리네.

風濤來擊石 성난 파도 몰려와 바위에 부딪쳐
 客枕警鞞聲 나그네 잠자리를 북소리처럼 깨우네.⁸⁾

1726년(영조 2) 임징하는 장령으로 소론제거를 주장하다가 평안도 순안으로 유배를 갔다가 다음 해인 1727년 제주도 정현 감산리로 이배되었다. 1730년 왕권의 확립과 국가기강을 세운다는 명분에 따라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그는 제주로 유배 가는 여정은 물론 제주에서의 삶을 시와 일기로 기록하였다. 그의 <제주잡시>은 김춘택의 <濟州櫟齋詩>를 본받아 총 20편으로 지은 것인데, 위의 시는 그 중 11번째 작품이다.

이 시에서 임징하가 느끼는 제주자연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다. 해무로 늘 어두운 하늘, 한라산 남쪽의 낮은 지대, 부화한 좀벌레, 흙탕물인 우물, 밥상 아래 돌아다니는 쥐며 괴상한 까마귀 등의 제주 환경은 서울살이에 익숙한 그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尾聯의 下句에서 임징하는 바위에 부딪치는 성난 파도소리에 잠이 깬다는 표현으로 극도로 불안한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파도소리는 일상의 소리이겠지만, 같은 파도소리라도 유배인에게는 전쟁의 북소리, 불안에 쿵쾅거리는 심장소리다. 삶의 한계선이었던 유배지에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견디고 있었다.

유배인에게 제주는 죽음의 땅이었다. 실제 제주 유배는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들에게 제주는 살아서 벗어나기 힘든 곳이었으며, 해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가지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의 풍광이나 백성의 삶을 살피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제주라는 공간은 그들이 경험한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은 유배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더구나 육지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체험은 유배인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였다. 金春澤이 제주 사람들의 옷을 털가죽 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를 모르는 미개한 백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서로

8) 任徵夏, 『西齋集』 권2, <濟州櫟齋詩 二十首> 중 제11수.

다른 이질적인 풍속은 김춘택에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고독을 느끼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은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극대화되어 유배인에게는 외로움과 불안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관리이든 유배인이든 거의 대부분 제주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처지에 따라 이들의 감정적 층위에 차이가 있지만, 제주는 결국 그들이 당연시하는 유교의 문명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었다. 제주의 풍물을 통해 고독감이나 이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문화를 하위단계로 차별하려는 시각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의 고독감은 공간의 단절에서 비롯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정적, 상황적 단절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⁹⁾

이처럼 파견된 관리나 유배인의 인식에 비해 제주에 대한 조정의 인식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 정조는 1790년 무렵부터 중앙에서는 성균관과 四學의 유생을 대상으로 講經과 製述을 치러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확대하면서 賓興科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1793년 耽羅賓興科를 시행하고, 과거 시험의 방목과 뛰어난 답안을 편집하여 1794년 『耽羅賓興錄』을 간행하였다.¹⁰⁾ 이같은 제주 유생을 試取하기 위해 정조가 직접 지어 내린 책문이다.

여기에서 정조는 탐라의 명칭, 고씨와 양씨의 계승, 소와 말과 가축의 여부, 元代 軍民按撫府의 정확한 지점, 河와 幕 양도의 설치 본말,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현인의 숫자 등 제주의 역사와 연혁에 대한 책문을 짓게 하였다.¹¹⁾ “아, 그대 제주의 제생아. 그대 제생이 성장한

9) 김새미오, 앞의 글, 183쪽.

10) 『正祖實錄』 18년 4월 21일 : “濟州御史沈樂洙, 試取儒生收券上送, 親臨科次. 論居首大靜幼學邊景鵬, 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 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 賦居首濟州幼學共達勛, 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 頌居首濟州幼學鄭泰彦, 并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以八十一歲, 特賜第. 命依嶠南關東例, 該載事實及入格諸作, 刊印以頒, 名曰耽羅賓興錄.”

11) 正祖, 『弘齋全書』 권51, 策問4, <耽羅>

땅은 옛날 九韓의 하나인 동방 瀛洲가 이곳이다. 성좌와 토양과 풍속과 제도와 산물은 비록 『職方記』에 기록된 것이 없고 『王會圖』에 그려진 것이 없다 하여도, 지역이 구분된 차례와 풍속의 순박하고 경박함과 연혁의 유래와 수륙의 알맞은 풍토에 대해서는 그대 제생이 이 고을에서 태어났고 이 고을에서 성장하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자연히 듣는 것도 아는 것도 많을 것이다.”¹²⁾ 이것은 이곳에 사는 지식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시제였다. 정조가 시행한 빈휙과가 소외된 지방의 유생을 격려하는 우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제주는 절도로 문화적 향유가 어려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丁若鏞의 경우에도 그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毛羅貢楸頌>에서 제주는 먼 바다에 위치하여 瘴氣가 심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흉년이 잦은 곳으로 전제하였다.¹³⁾ 이어 말과 꿀을 공납하는 현실을 서술한 뒤, 당시 비바람에 꿀꽃이 떨어져 백성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는 정경, 그에 감응하여 세 그루 굴나무에 꽃이 다시 피고 열매를 맺어 진상할 수 있었던 사연을 기술하였다.頌에서는 제주 백성들의 이러한 정성을 칭송하며,

<전략>

於皇我王	아 높으신 우리 임금님
懷殊俗兮	외방(外邦)을 감싸되
視民如傷	백성을 아픈 사람 다루듯 아끼시니
后所燭兮	후토가 통촉하시어
錫茲奇祥	이 상서를 내림으로써
俾德彰兮	그 덕화를 빛나게 하셨네.

<후략>

12) 正祖, 『弘齋全書』 권51, 策問4, <耽羅> : “咨爾濟州子諸生. 子諸生生長之地, 古之九韓之一也, 東瀛洲是已. 星土也, 風俗也, 制置也, 產植也, 雖職方所不載, 王會所不圖, 其區分之次, 淳漓之殊, 因革之由, 水陸之宜, 子諸生, 生於是鄉, 長於是鄉, 耳之得目所親, 自有聞博而識明者.”

13) 丁若鏞, 『與猶堂全書』文集 권12, <毛羅貢楸頌> : “毛羅爲國, 遼絕海中, 地瘴土瘠, 歲數飢荒.”

라고 하였다. 절도의 지리 조건, 척박한 토지, 백성의 굶주림은 서울의 조정 신하 및 사대부의 현실적 이해가 부족한 감상적 인식의 일면이다. 정약용이 <탁라공굴송>에서 이러한 제주의 낙후한 상황을 제시한 것은 마지막에 제시한 임금의 덕화를 빛나게 하는 요소였다.

이외에도 許穆의 <탐라지>, 李種徽의 <耽羅列傳> 등도 탐라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 탐라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역사, 지리, 신앙에 대한 단순 기술은 지식이지 인식은 아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기 견해가 있어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은 이국적 풍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Ⅲ. <耽羅錄序>에 나타난 당대 문인들의 인식

1. 「탐라록」의 배경

申光洙(1712~1775)는 53세였던 1764년 의금부 도사로 죄인을 잡아오는 임무를 띠고 제주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풍랑으로 인해 45일간 머물며 지은 시가 『石北集』에 실린 「耽羅錄」이다. 58제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 「탐라록」은 『浮海錄』으로도 알려져 사람들에게 널리 애송되었다¹⁴⁾고 한다.

39세에 진사시에 입격한 신광수는 科體에 능하여 <登岳陽樓歎關山戎馬>는 그의 문명을 알린 작품이다. 또한 樂府體에 능하여 농촌의 현실과 하층민의 고난, 관리의 부정 등 당시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인 필치로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蔡濟恭은 “得意作은 三唐을 따를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도 명나라의 李攀龍과 王世貞을 능가하며 東人の 누

14) 申光洙, <行狀>(申光洙, 『石北集』附錄): “公留館四十日, 日與同僚郎及書吏朴壽喜爲歌詩, 紀其人民風土山川鳥獸羈旅困頓之狀, 有浮海錄, 行於世.”

습을 벗어났다.”고 평하였다.

의금부 도사로 죄인을 잡아오기 위해 탐라에 갔다. 매일 말을 타고 300리를 달리고 배를 타고 반일 만에 탐라부에 들어갔다. 다음날 순무어사와 함께 배를 타고 앞뒤로 출발하여 한밤중에 700리 큰 바다에 이르러 큰 바람이 일고 하늘이 어둑해지니 파도가 돛을 10장 넘게 내려쳤다. 배를 회오리바람이 한번 몰아쳐 상선 2척을 순식간에 눈앞에서 부수어버렸다. 뱃사람도 크게 두려워하며 울부짖고, 동료 금오랑이 공의 손을 잡고 통곡하였다. 그대는 천천히 “두려워하지 마소.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으니 통곡한다고 어찌 하겠소”라고 하였다. 장차 새벽이 될 무렵 배가 정박하니, 뱃사람이 “필시 蘇州나 杭州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날이 밝아 살펴보니 곧 탐라였다. 어사가 바람으로 표류한 일을 임금에게 알리니,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두 크게 경악하며 “아무개는 충신한 사람이니 어찌 바다에서 죽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대의 浮海錄이 있어 세상에 전한다. 그대는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인물이니 하늘도 기이한 일로 그대를 시험하여 문장의 기이함으로 드러내길 바란 것이다.¹⁵⁾

뱃인 채제공이 신광수를 위해 지은 묘지명의 일부이다. 신광수의 살아서 행적 중 탐라에 갔던 일을 적으면서 전후 사정을 빠른 필치로 기록하였다. 특히 탐라에 간 사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출발할 때의 광경은 유독 빠르고 당당하게 기술하였다. 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다시 제주로 돌아온 위험했던 사정은 다급하고 격렬하게 표현하였다. 정작 그 이후 생산한 「탐라록」에 대한 부분은 부해록이 세상에 널리 읽힌다고 간단히 처리하면서, 기이한 재주를 가진 신광수를 하늘도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공적인 행적을 기술하는 묘지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탐라록」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처리하고 그 의미를 기

15) 蔡濟恭, 『樊巖集』 권54, <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石北申公墓誌銘> : “其以禁府都事拿罪人赴耽羅也. 日馳馬三百里, 舟半日入耽羅府. 明日, 同巡撫御史舟先後發, 夜半到七百里洋, 大風作天黑色, 水擊颿過十丈. 舟旋飄一蹕, 商船二艘忽碎於前. 舟人大恐啼, 同僚郎執公手痛哭. 君徐曰, ‘無恐也. 死生有命, 哭奈何.’ 天將曉舟泊, 舟人曰, ‘必蘇杭也.’ 平明視之, 乃耽羅也. 御史以漂風聞, 聞者皆大驚錯愕, 以爲某忠信人, 豈死於海者. 君有浮海錄行於世. 君奇士也, 天亦以奇事戲君, 要以發文章之奇也.”

술함으로써 신광수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류하다가 정박했을 때 뱃사람이 항주나 소주로 착한 것은 宋代 제주의 배가 표류하다가 중국에 정박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¹⁶⁾

‘奇士’, ‘奇事’, ‘文章之奇’ 등 ‘奇’를 반복하여 「탐라록」의 배경과 하늘의 의도를 풀이함으로써 이 「탐라록」이 ‘奇’의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제주에 대한 여타 기록처럼 그곳의 풍속이나 명승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 기이한 재주를 가진 신광수를 기이한 일로 시험한 것만 부각하였다. 하늘의 의도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그것을 기이한 문장으로 드러내게 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丁範祖 역시 신광수가 탈 없이 살아난 것을 하늘의 뜻¹⁷⁾이라고 하였다. 이 「탐라록」은 당시 문인들 사이에 상당히 회자되었다. 許薰은 탐라록을 제주기행기록의 백미로 평가하여 서울의 종이값을 올렸다고 할 정도였다.¹⁸⁾

2. 서문 찬자의 인식

이 「탐라록」에는 李瀾, 睦萬中, 丁範祖의 서문과 신광수의 自序가 실려 있다. 신광수가 제주에 간 것은 1764년(영조 40) 1월 26일이었다. 의금부 도사로 죄인을 잡아오기 위해 명을 받고 동료인 도사 李瀾¹⁹⁾과 함께 제주로 들어갔다.²⁰⁾ 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으로 네 차례

16) 李瀾 『星湖僿說』, <毛羅麻子>.

17) 丁範祖 『海左集』 권3, <聞聖淵淵白柳島無恙> : “南溟聲息繡衣傳, 拍案聞來喜欲顛. 風雨不驚楸子島, 文星依舊濟州船. 一心忠信寧知海, 萬死生全始有天. 何日玉墀歸復命, 清明花發禁城囚.”

18) 許薰 『舫山集』 권6, <上外舅海蓮李公> : “當與石北耽羅錄抗衡, 而洛陽之紙貴.”

19) 당시 함께 제주도에 들어간 李瀾은 자가 穎源으로, 호가 星湖이며 자가 子新인 여주이씨 李瀾(1681~1763)과는 다른 인물이다.

20) 『承政院日記』 英祖 40년(1764) 1월 1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再明日舉動時, 大駕各差備都事, 當爲備員, 出使都事李瀾·申光洙·朴相玉·申大觀, 竝令該曹, 口傳相換, 以爲分排備員之地, 何如? 傳曰, 允.” 또 같은 날 : “吏曹口傳政事, 禁府都事李瀾, 北部奉事李敬倫, 禁府都事申光洙, 繕工奉事李沆, 禁府都事朴相玉, 漢城主簿趙漢鎮, 禁府都事申大觀, 訓練主簿俞漢輔相換.”

나 배를 띄웠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3월 13일에야 海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비로소 제주를 벗어날 수 있었다.²¹⁾

내가 갑신년(1764년) 정월 16일 금오랑으로 명을 받고 탐라에 가게 되니 동료 申光洙가 실로 이 일에 함께하였다. 26일 바다를 건넌 뒤 매서운 바람이 매일 불어 파도가 심하게 일었다. 앞뒤로 네 번이나 배를 띄웠다가 되돌아 와 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중에 폭풍을 만나 거의 배가 전복될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禾北鎮 喚風亭에 머무니 앞뒤로 40여 일이 었다. 성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하늘과 바다는 망망하고 게다가 王事가 더더짐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황공하였고 집안의 소식도 끊어지니 회포가 또한 울적하였다. 성연과 마주앉아 서로 바라보며 종일토록 침묵하며 소일거리가 없었으니 거의 광증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성연이 평소 시를 잘하고 따라온 관리 朴壽禧도 시에 능하여 매일 시를 지어 근심을 다스렸다. 내가 비록 시을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때때로 수창하는 일을 면치 못하였다. 체류한 날이 많아지니 어느새 긴 시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운이 화락하지 못하고 시어에 극심한 근심이 많은 것은 무릇 그 마음에 쌓여 말에 드러난 것이니, 아마도 보는 사람이면 그 본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跌宕한 심회를 읊었다고 보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마침내 세 개의 시축으로 깨끗하게 써서 각기 하나씩 가져 책상자에 보관하여 훗날 대면할 때로 삼는다.²²⁾

앞서 살핀 채제공의 묘지명이 신광수가 제주를 벗어날 때 겪었던 고초를 상술했다면, 이익의 서문에서는 풍랑 때문에 머물렀던 기간의 정황과 탐라록을 만들게 된 사연을 자세히 적었다. 이익의 서문은 탐라를

21) 申光洙, 『石北集』, 「耽羅錄序」, “凡四發船, 輒遇風回泊, 前後留館, 盖四十五日. 至三月十三日, 夜祭海神, 始出海, 宿楸子島, 十四日無風, 下碇宿洋中, 十五日夜, 冒雨登陸.”

22) 李翼, <耽羅錄序> : “余於甲申歲正月十六日, 以金吾郎, 出使耽羅, 僚官申光洙, 實同此役. 二十六日渡海後, 因盲風日吹, 波濤甚盛. 前後四發船, 輒致回泊, 中經颶作, 幾覆舟亦屢矣. 留禾北鎮喚風亭, 首尾四十餘日. 登城北望, 天水茫然, 加以王事稽遲, 情甚惶懼, 家信隔絕, 懷亦鬱悒. 與聖淵對坐相視, 嘿嘿終日, 無以聊遣, 殆發狂疾. 而聖淵素善詩, 隨吏朴壽禧, 亦能詩, 乃日日拈韻, 以撥愁悶. 余雖不閑於詩律, 而亦弗免時時和韻. 留日既多, 奄成巨軸, 若其聲韻不暢, 語多愁絕, 盖以鬱於中而發於言者, 覽者庶可得其本情, 而不視以吟詠跌宕則幸矣. 遂淨寫三軸, 各留其一, 莊之中衍, 以作後日顏面云爾.”

경험하였으며 동시에 동행했던 참여자의 시각으로 다른 서문의 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바다 한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동행자의 심정은 육지의 다른 문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성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하늘과 바다는 망망하고 게다가 王事가 더더짐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황공하였고 집안의 소식도 끊어지니 회포가 또한 울적하였다.[登城北望, 天水茫然, 加以王事稽遲, 情甚惶慄, 家信隔絕, 懷亦鬱悒.]”는 구절은 돌아가 조정에 보고해야 할 공적인 책무와 소식이 끊긴 나그네의 사적인 심회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신광수는 함께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을 술회하며 이익에게 시를 보냈다. 王粲이 강릉의 성루에서 <登樓賦>를 짓고 張騫이 황하의 근원을 찾고 배를 타고(乘槎) 은하수에 올라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는 고사를 들어 자신들이 탐라에서 겪었던 일이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됨을 강조하였다.²³⁾

함께 동행했던 申光洙의 <自序>도 이익의 서문과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먼저 탐라에 온 육지인은 나라의 명을 받고 온 관리이거나 귀양온 사람[至是邦者, 非宦則謫客也.]이라 하여, 당시 제주에 간 사람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신광수의 서문에는 탐라의 풍물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객관에 머문 지 3개월²⁴⁾에 비바람이 없는 날이 없었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흙이며 돌, 짐승들이 모두 검었는데, 남녀의 가죽옷은 남루²⁵⁾하였다.”²⁶⁾ 그러나 막막한

23) 申光洙, 『石北集』 권8, <呈李穎源(瀾)僚兄> : “從來將作黍僚身, 俱是耽羅奉使臣. 王粲樓中同作賦, 張騫槎上忽經春. 通家自有當時論, 到處相隨死世因. 聞說松楸歸日遠, 直中懷抱向何人.”

24) 신광수 일행은 45일 동안 제주에 머물렀지만, 1월에 들어가서 3월에 나왔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한 것이다.

25) 원문에는 ‘鳩舌’이라 하였다. 이것은 가죽옷이 해져 누더기처럼 기어 입은 모습, 곧 ‘鷄衣’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又憫荒>에서 흉년이 들어 관리조차 남루한 옷(鷄衣)에 끼니를 겨우 해결하는 모습이 형상화되었다.

26) 申光洙, 『石北集』 권7, <自序> : “滯館三月, 無日不風雨, 舉目見土石鳥獸皆黑, 男女皮服鳩舌.”

체류에 대해서는 점차 두려움을 느꼈다.

한라산이 수 십리에 있는데, 항상 운무가 끼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루는 성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바람치는 파도가 하늘에 닿아 아득하여 끝이 없었으니 이내 탄식하며 내려왔다. 아전과 사졸들이 종종 서로 마주한 채 눈물 흘리니 우리 두 사람이 제지하고자 해도 어쩔 수 없어 역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니 마치 다시는 탐라를 벗어날 수 없는 듯하였다. 이런 때를 당하여 어느 겨를에 歌詩를 창화하며 조용히 즐겨 마치 평소에 사신 간 사람이 하던 것처럼 타지에 머물며 늘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체류한 날이 오래되자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끄끙대니 모두가 실의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다.²⁷⁾

신광수 일행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광수는 이것을 체류가 아니라 섬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위로는 한라산을 바라봐도 운무에 가려 보지 못하고, 옆으로는 온통 무섭게 파도치는 바다 뿐인 상황에 마주하여 그 일행은 다시 섬을 벗어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전과 사졸을 위로하지만 끝내 두려움에 병이 날 지경에 이르는 답답함과 외로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익의 서문에서도 ‘殆發狂疾’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때에 다른 곳으로 사신 간 이들이 시를 짓고 수창하며 즐기는 여유가 일체 있을 수 없다. 답답함과 두려움에 시라도 지으며 소일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뿐이다.

「탐라록」에 실린 서 중 睦萬中과 丁範祖의 <탐라록서>는 제주를 경험하지 못한 조정의 육지의 문인들의 시각으로, 이익의 사실적인 경험에 비해 관념적 인식이 나타난다.

목만중의 <탐라록서>에는 제주를 선계로 인식하여 동경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탐라는 예로부터 瀛洲라 일컬어졌으니 신선이 사는 곳이

27) 申光洙, 『石北集』 권7, <自序> : “漢拿山在數十里, 常雲霧不見面. 日登城北望, 風濤接天, 滌無涯涘, 輒太息卽下. 吏士往往相對流涕, 吾二人欲制不能, 亦爲之泫然, 如不復出耽羅者. 當是時, 顧何暇乎唱和歌詩, 從容自娛, 如平時奉使者之爲留連鋪張哉. 濡滯之久, 不堪其憂, 日夕謳吟, 皆廢然生疾.”

라”²⁸⁾라고 하여, 제주에 대한 피상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탐라는 지금 토지와 호적의 대장에 소속하여 주현을 삼았으니 실체는 바다 가운데 하나의 작은 나라이다. 그 백성들은 가족으로 옷을 입고, 그 토양은 검고, 그 산물은 꿀과 유자와 좋은 말이고, 그 鎭山은 한라산이고, 그 별자리는 老人星을 가리키며, 그 풍속에는 시장이 없고, 남녀가 물질을 좋아하며 방아노래를 잘하는데, 쌀이며 젓갈을 북으로 배를 통한다고 한다.”라고 하여, 제주의 풍속과 물산, 지형 등을 「탐라록」의 시를 통해 전하고 있다.²⁹⁾ 목만중이 주목한 것은 탐라의 이국적인 풍속이었다. 한라산과 노인성과 같은 지리적 특징은 물론이고 의복, 토양, 풍속, 식생활 등을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이에 비해 丁範祖, <탐라록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인식이 보인다. “탐라는 세칭 영주이니, 영주는 대저 삼신산의 하나이다. 그러나 탐라가 이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바닷길로 출입하니 배가 뒤집어지는 근심이 있어 사람들이 혹 가기를 꺼려한다. 간혹 나라의 일로 가더라도 별별 떨며 오직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니, 어느 겨를에 조용히 그 회포를 노래로 드러내 시를 짓겠는가?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찌 더불어 수창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시의 工拙은 따질 것도 없다.”³⁰⁾라고 하였다. 정범조는 제주를 동경과 두려움이라는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속에서 말하는 신선의 세계이자, 서울에서 떨어진 절도로써 통행의 두려움을 동시에 지적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은 앞선 목만중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시를 짓고 또 수창까지 한 신광수의 기개와 문학적 능력을 칭송한 것이지만, 정범조의 인식은 왕래의 어려움을 넘어 공포의 공간으로서 제주를 인식하였다. 이처럼 먼 바닷길에

28) 睦萬中, 『餘窩集』 권11, <耽羅錄序> : “耽羅雖古稱瀛洲, 仙人之所窟宅.”

29) 睦萬中, 『餘窩集』 권11, <耽羅錄序> : “耽羅今雖屬版籍爲州縣。其實海中一小國。其民皮服。其土黑。其產橘柚良馬。其鎭漢挈。其星老人。其男女喜潛水善春歌。其俗無市。米塩通北船云”

30) 丁範祖, 『海左集』 권 21, <耽羅錄序> : “耽羅, 世稱瀛洲, 瀛洲, 盖三神山之一云。然耽羅既去京師絕遠, 海道出入, 有舟楫傾敗之虞, 故人或不樂往。間以王事往, 惴惴然唯風濤是恐, 豈有暇豫從容發之詠歌而爲詩者乎。設有之, 豈有所與唱酬者乎。卽詩之工拙亡論也。”

서 만나는 풍랑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혹 왕명을 받아 어쩔 수없이 가더라도 두려워하는 공간이 제주라는 인식은 아마 당시 서울 문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범조는 신선의 세계인 탐라가 仙道에 능한 신광수를 만난 것은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여 그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였다.³¹⁾

아울러 「탐라록」에 수록된 신광수의 한시를 “그 시를 읽어보니, 그 氣力은 巨魚와 大鵬과 더불어 안개를 뿜어내는 듯하고, 그 불꽃같은 광채는 珊瑚와 日月과 더불어 질탕한 경지를 비추고, 그 넓은 회포는 마치 한라산에 올라 남극노인성과 함께 서로 희작하며 흰 사슴을 타고 훨훨 백록담에서 노니는 듯하다. 바야흐로 바다를 마치 대접 속의 물처럼 여기니 사나운 바람과 매서운 폭풍이 어찌 그 마음에 끼어들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³²⁾

조선후기 지식인 사이에서 제주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三神山 중 瀛洲山에 빚대어 瀛洲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곧 신선이 사는 선계라는 보편적 인식이었다. 특히 한라산은 신선의 산으로 그 실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등람의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국가가 주관하는 산신제를 통해 의례의 공간으로서 신앙적 영역화 또는 상징화가 이루어졌다. 한라산과 제주는 육지의 지식인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한라산이라는 신선의 공간이 점차 유학자들의 修己의 공간으로 변화되기도 하였지만,³³⁾ 쉽게 갈 수 없는 제주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를 경험하지 못한 육지인의 관념적 인식일 뿐이다. 제주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러한 관념적 동경이나 인식보다 앞선 것은 제주를 벗어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31) 丁範祖, 『海左集』 권 21, <耽羅錄序> : “世言三神山多仙人, 以此奇耽羅. 而余謂仙道, 寧須學修鍊飛昇爲哉. 要亦委化順命, 外患不入. 如聖淵者, 固仙道之宗耳, 卽羨門安期, 未必奇耽羅. 而耽羅之遇聖淵, 固益奇也哉.”

32) 丁範祖, 『海左集』 권 21, <耽羅錄序> : “讀其詩, 氣力則與巨魚大鵬相賁薄, 光焰則與珊瑚日月相照映跌宕, 恢曠則如登漢學山, 與南極老人相嬉戲而騎白鹿, 翩然潭上遊也. 方且視海如盤盂水, 鱷風颶魚, 豈足介其靈臺哉.”

33) 송민경, 앞의 글, 60-61쪽.

는 답답함과 두려움이였다. 「탐라록」에 실린 모두 4편의 서문은 당시 현지에 있는 사람과 육지에 있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현지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이미 신선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동경을 넘어섰다. 그러나 육지의 지식인들에게 제주라는 공간이 지닌 답답함과 두려움을 실감할 수 없는 정서였다. 평소 친한 벗이 겪은 두려움은 단지 한 사람의 奇士를 포장하거나 그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奇事로 인식하였다.

이 「탐라록」은 당초 신광수 개인의 시편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신광수와 이익의 서문에서 언급했듯 이익, 박수희 세 사람이 함께 시를 지으며 수창한 것이였다. 이것은 신광수가 이익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에 있을 때 신광수 일행은 제주를 나온 뒤 수창한 시편을 모아 신광수가 각기 한 통씩을 써서 자손들이 볼 만한 것으로 남기고자 약속하였다. 신광수는 1764년 12월 繕工監 奉事に 임명되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 무렵 박수희가 수창한 시편을 먼저 정사하여 그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듬해 병이 들고 더위까지 겹쳐 이익의 시편을 정리하는 일이 부진하여 해를 넘긴 뒤 비로소 일을 마쳐 자신과 박수희 시편을 정사하여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익의 시편은 수록하지 않았다.³⁴⁾ 이로 본다면 원래 세 사람이 제주에서 수창한 시편을 별도의 시축을 엮어 각기 하나씩 소장하기로 하고, 그 일을 신광수가 맡았다. 각각의 시축에는 주인의 작품은 빼고 다른 두 사람의 시편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신광수의 「탐라록」에 이익과 신광수의 序가 수록되어 있지만, 수록 시편은 신광수 한 사람만의 것이다. 따라서 목만중이나 정범조의 서문에는 표류와 수창의 정황만 제시되었을 뿐 각각의 어떤 작품에 누가 수창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신광수의 『석북집』을 편찬하는

34) 申光洙, 『石北集』 권8, <書李穎源(瀾)耽羅錄後> : “耽羅時, 僚兄陪吏, 約出海後, 以不佞筆, 各書一通, 留作子孫之觀. 昨年在繕工直中, 先寫朴吏長軸以歸之. 此錄以病暑不振, 下筆旋輟, 遷就經歲, 今始斷手, 而不佞與壽喜之作, 非穎源所和者, 不錄於此卷云爾.”

과정에서 이익과 박희수의 시편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이 李玄煥이 지은 <瀛洲唱和錄序>이다. 그러나 정작 이 서문은 「탐라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현환(1713~1772)은 자가 星叟, 호는 鶴西이다. 초명은 壽煥이었는데, 玄煥으로 개명한 이유와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신광수가 이현환에게 준 <壽李星叟>라는 시에 壽煥이라는 함명이 보인다. 그는 여주이씨 소릉공과 후예로, 아버지는 李學休이며 어머니는 南陽 洪復亨의 딸이다. 1744년 進士試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이학휴의 권유로 벼슬을 포기하고 안산 瞻星里로 돌아왔다. 族祖인 李翼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經學에 바탕한 家學에 전념할 것을 권유받았으나³⁵⁾ 이를 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환이 1765년 <영주창화록서>를 지은 것은 신광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³⁶⁾ 특이한 것은 이 서문이 모두 3편으로 改作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개작은 작가가 일정한 목적 하에 작품이나 원고를 고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단순한 字-句-章-篇의 수정이나 刪削은 물론 그에 따른 意境의 變改를 포함한다. 개작은 개별 한문산문의 구성과 미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다. 작가가 작품을 구성하는 의경에서부터 실제 창작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작품이 어떻게 변개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산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현환이 지은 세편의 <영주창화록서>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하나의 사건을 세편으로 구성한 이 일련의 작품에서 의경, 서술전략 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문산문의 미적 특질에 접근할 수 있다.³⁷⁾

35) 『蟾窩雜著』, <祭星湖公文> : “嗚乎! 先生之期小子, 已不草草, 而小子仍從事於博士家業, 耗精於功令之文, 而積困科場, 居然髮種種, 卒不能副先生訓戒之意, 以爲平生懊恨矣.”

36) 李玄煥, 『蟾窩雜著』, <瀛洲唱和錄序> : “聖淵示余瀛洲一錄, 余讀之竟軸, 爽然自失, 遂題其卷首而還之也.”

37) 박용만, 「李玄煥의 「瀛洲唱和錄序」改作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0집,

세 편의 <영주창화록서>는 일반적인 서문과 의경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현환이 첫 번째 서문에서 말한 것은 奇士인 신광수가 불행(죽음/水仙)이든 행(생존/奇會)이든 그의 경험은 亦幸(문단의 勝事)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改一本>은 신광수에 대한 실망이 짙게 배어있다. 신광수의 경험을 듣고 그가 기이한 경험을 통해 문장지사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하였으나, 체념과 두려움, 그리움으로 형상화된 영주창화록을 보며 이현환은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又一本>은 신광수의 기이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시문론이 집약되어 제시된 글이다. 신광수의 탐라에서의 경험은 글을 쓰는 하나의 계기일 뿐 그 일에 대한 이현환의 인식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신광수 일행이 제주에서 지은 시편을 바라보는 이현환의 인식은 신광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주를 이룬다. 醉生夢死하는 일상의 벗어나 망망대해를 건너 제주를 견문한 그의 경험이 그의 문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친한 벗의 기행창화록에 서를 쓰는 경우 상대를 높이고 시편을 칭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작품들은 신광수에 대한 실망의 소회가 강하게 표현되었다. 나아가 벗의 죽음을 상정하여 기술하는 태도는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경은 목만중과 정범조의 의경과 다르다. 목만중은 신광수의 체험을 조물자가 의도한 기이한 일로 인식하고, ‘各有所當’의 논리에 따라 신광수의 제주의 만남을 당연시 하였다.³⁸⁾ 정범조 역시 제주와 신광수의 만남을 기이한 일이자 당연한 귀결로 보았다.³⁹⁾ 이들에게서 신광수의 체험은 그의 문장을 극대화시키는 조물자의 의도였고 그 의도에 잘 부합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현환처럼 실망의 소회는 드러나지 않는다.⁴⁰⁾

의경의 차이로 각 편은 심한 내용의 변개가 이루어졌다. <영주창화

한국한문학회, 2007, 178-179쪽.

38) 睦萬中, 『餘窩集』 권21, <耽羅錄序> : “甚矣, 造物者之好奇也! 夫物各有所當, 大與大相當, 小與小相當, 非石北, 固無足以當瀛洲者.”

39) 丁範祖, 『海左集』 권21, 「耽羅錄序」, “世言三神山多仙人, 以此奇耽羅. <中略> 未必奇耽羅, 而耽羅之遇聖淵, 固益奇也哉.”

40) 박용만, 앞의 글, 198-199쪽.

록서>와 <改一本>에서는 소회와 실망이 주를 이루며 한 계열을 이룬다, 그러나 <又一本>에서는 자신의 시문론과 세계관이 주를 이루어 앞의 두 글과는 다른 별개의 의경을 드러내었다. 또한 <영주창화록서>와 <改一本>도 실망의 정도에 따라 구성과 표현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현환과 유사한 인식을 보인 것이 許薰(1836~1907)이었다. 허훈은 <乘槎錄序>에서 신광수의 기이한 경험에 실망감을 보였다. 첫째, 중국의 시사에 든 뒤 요하를 건너 동으로 왔다면 먼 곳에서 본 괴이한 것이 필시 시에 드러나 그 명성이 천하에 진동하였을 것이다. 둘째, 바람을 받아 출발함에 순풍을 받아 선회하며 여유롭게 시 지으며 감상하여 제주의 연운, 풍우, 초목, 층어에 지나지 않았으니 유독 사람들로 하여 혀를 차게 한다고 하였다.⁴¹⁾ 신광수가 제주의 풍토와 산천을 벗어나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면 그의 재주와 결합되어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신광수의 「탐라록」에 서문을 지은 사람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신광수와 이익처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집단과 목만중, 정범조, 이현환처럼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집단이다. 이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은 두 집단 사이의 제주에 대한 인식에 확연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간접적인 경험은 제주를 신선의 사는 동경의 공간으로 보면서 동시에 생사를 넘나든 신광수의 경험을 奇事로 이해하여 신광수의 문학적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제주에서 직접 경험한 신광수와 이익에게 제주는 孤立無援의 공간이었다. 섬을 벗어날 수 없다는 답답함과 그곳 또는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

41) 許薰 『舫山集』 권15, <乘槎錄序> : “余嘗讀石北申公耽羅錄, 竊恨其颺不猛, 而漂不遠何也. 石北, 近世詩家之傑也. 若借大颺, 踔重溟幾萬里, 泊于蘇杭閩廣之間, 轉入燕社, 渡遼河而東之, 則遐怪所矚, 必皆發之于詩, 名聲足以動天下. 風旣發, 其便而旋闕之, 流連賦賞, 不過瀛洲之煙雲雨風艸木蟲魚而止, 殊令人咄咄.”

이었다.

IV. 「耽羅錄」 수록 한시의 정서

「탐라록」에는 제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신광수가 지은 5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45일간 체류하는 동안 지은 작품은 <入島>부터 <潛女歌>까지 49편이다. 신광수가 경험했던 탐라의 경물과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탐라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의 한시와 구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주위 사대부들의 인식과 다른 사실적 인식이 주를 이룬다. 이를 세 가지 특징⁴²⁾으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이국적 풍물에 대한 소회

久我南中客	오랜 머문 나는 남도의 나그네
頗於土俗詳	자못 토속을 자세히 알게 되었네.
方音多細急	방언엔 가늘고 촉급한 것이 많고
夷姓半高良	백성의 성씨는 고씨와 양씨가 태반이라.
只見蜂房石	벌집 모양의 돌은 보았지만
虛聞馬尾裳	말총으로 치마지었다는 것은 헛소문인 듯.
北人如問事	북쪽사람들 이 일을 묻는다면
歸作話頭長	돌아가 들려줄 이야기 많도다. ⁴³⁾

탐라에 대해 신광수는 먼저 이국적인 풍물과 풍속을 주목하였다. 서울의 관료로 지내온 그에게 남쪽 끝 섬 생활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

42) 부영근은 신광수 「탐라록」의 한시 세계를 ‘風流意識의 具現’, ‘官僚意識의 透映’, ‘愛民意識의 發露’로 구분하였다. 부영근,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考察」,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53-61쪽.

43)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土風>

였다. 이 시에서 신광수는 제주의 언어, 성씨, 돌, 특산물인 말총 등 서울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이질적 문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제주의 언어생활은 지금도 쉽게 소통되기 어려운 문제였듯 당시 신광수에게 매우 이질적 문화였다. 전통시대 사대부에게 經學에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小學의 음운학과 문자학은 매우 중요한 분야였다. 신광수 역시 음운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의 언어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을 것이다. 그가 말한 ‘細急’이 어떤 언어현상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신광수에게 제주의 방언이 매우 이질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알려진 대로 제주는 三姓穴에서 기원한 高, 梁, 夫가 토성이다. 세 성씨 중 고씨와 양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良氏는 梁氏로 바뀌게 되는데,⁴⁴⁾ 신광수는 아직 陽氏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표현 중 이채로운 것이 ‘蜂房石’이다. 三多 중 하나인 제주의 돌은 화산석으로 마치 구운 숯처럼 구멍이 많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띠고 있다. 신광수는 ‘蜂房石’ 곧 ‘벌집 모양의 돌’로 표현하였다. 또한 탐라의 특산물이 말총이었다. 이것을 익히 알려진 것이기에 더러는 말총이 흔한 것으로 잘못 소문이 난 듯하다. 탐라에 말총이 많지만 서울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인들이 치마를 지어 입는다는 것은 낭설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이국적 경물과 풍속에 대해 신광수는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사실인 것과 와전된 것을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자신이 현지에서 본 경험이 서울에 올라가면 탐라의 실상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老人星이 춘분과 추분에 대정 바다 가운데 보이는 모습,⁴⁵⁾ 따뜻해지는 2월에도 뱀이 출몰하거나 남녀가 가죽옷을 입고 방앗소리 부르는 광경,⁴⁶⁾ 남자 복장을 입은 여자 기생이 말을 타는 모습⁴⁷⁾ 등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광경은 그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

44) 『三國史記』: “自此事新羅,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都上. 後改良爲梁.”

45)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初度日 值春分 州妓綠壁問病餽橋 以詩謝贈> 협주 “老人星, 以春秋分, 見大靜海中.”

46)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風土>

47)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城上觀妓走馬>

격이었다.

2. 관료로서 사명감

白頭鬢家女	하얀 머릿결 섬 여자들
焦髮鬢家兒	푸석한 머리카락 섬 사내들
纍纍爲羣十數人	웅기종기 떼를 지은 수십 명이
皆着半鞞黃狗皮	모두 거의 털이 빠진 개가죽 입고 있네.
一身枯黑皮粘骨	검게 그을린 마른 몸은 가죽이 뼈에 붙은 듯
飢不成音細如絲	굶주려 소리조차 내지 못하여 희미하기 실과 같도다.
<중략>	
此邦富者能幾何	이 고을 부자가 몇 명이리오
又失今農亦溝壑	또 올해 농사 망치면 죽은 목숨이라네.
耽羅乞兒聞我言	탐라의 거지들 내 말을 듣고
一時掩面啼向北	일시에 얼굴 가리며 북쪽 향해 울부짖네.
北方雖遠父母邇	북쪽이 비록 멀어도 부모님처럼 가까우니
萬里明見耽羅國	만리 밖 탐라국을 밝게 살피소서. ⁴⁸⁾

남쪽의 섬인 제주도는 중앙의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못해 백성의 삶이 곤궁했던 곳이다. 서울의 사대부에게 제주는 낙후한 공간으로 인식된 것도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컸다. 단순히 선비가 아니라 왕명을 받고 도착한 신광수에게 백성들의 실생활은 관료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웠다.

위의 시는 <濟州乞者歌>로, 당시 제주의 거지떼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거지의 모습이 당시 탐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에 털 빠진 개가죽 옷을 입은 수십 명의 거지떼를 표현하였다. 굶주림에 비쩍 말라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참혹한 실상을 보여준다. 후반부는 북쪽을 향하여 임금의 은혜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서술되었다. 전반부에서 지식인으로서 제주 거지의 실상을 기록하였다면 후반부에는 임금의 덕화

48)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濟州乞者歌>

와 은혜가 탐라에까지 미치기를 갈망하는 관료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하소연하는 거지와 소외된 제주의 백성을 임금이 살피줄 것이라는 관료로서의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앞에서 살폈듯 정약용이 <毛羅貢橋頌>에서 제주 백성의 삶을 제시한 뒤 결국 모든 것을 임금의 덕화와 은혜로 귀결시켰다. 그러나 신광수는 임금의 덕화를 기대하면서도 관료로서의 사명감을 보인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백성의 삶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공감

石田頻歲海民饑	자갈밭 잦은 흉년에 섬사람 굶주리니
滿目淒涼物色悲	눈앞의 처량한 물색 슬프기만 하여라.
從古魚鹽無市國	예로부터 어염이 흔해 장이 서지 않는 곳이었던만
如今風雨絕船時	지금은 비바람에 배조차 끊어졌네.
長毛鎮卒偷麩肉	더벅머리 진졸들 부엌의 고기 훔치고
黃面蕃姑剝樹皮	누렇게 뜬 변방의 아낙들 나무껍질 벗기네.
我亦王人來此地	나야 벼슬아치로 이곳에 왔다지만
每當朝夕自停匙	매번 아침저녁마다 숟가락 멈추네. ⁴⁹⁾

본래 제주는 바다에 싸여 있어 어염이 풍족하여 장조차 서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신광수가 체류한 1764년 1월부터 3월 사이 <憫荒>이란 칠언율시에서 보이듯 제주는 흉년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다. 더구나 그들 일행이 제주를 떠나지 못할 만큼 풍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육지의 식량이 운반되기도 어려웠다. 애초 기름진 농지가 부족한데다 흉년까지 겹치니 아녀자들은 나무껍질을 벗기고 진졸 또한 먹을 것을 훔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탄식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에서 온 관리라고 꼬박꼬박 식사가 제공되지만 백성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 그로서는 차마 음식이 목에 넘어갈 리 없다. 1764년 제주 백성의 참담한 삶의 현장을 신광수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표현이

49)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憫荒>

돋보이는 것은 그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신광수가 목도한 백성의 현실은 흉년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상선들은 봄마다 쌀을 실어 나르지만, 시골 밥상에 저녁마다 새우만 있어라. 밤이 되어 관리의 말을 들으니, 관아의 세금이 하늘까지 오른다 하네. [商船春通米, 村盤夕有鰕. 夜聞官吏語, 官稅到天涯.]”⁵⁰⁾ 강진의 해일루에서 시를 지은 신광수 일행은 제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중간에 蘇安島라는 섬에 정박하여 하룻밤을 보낸 뒤 白島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갔다. 위의 시는 소안도에 머물며 지은 것인데, 쌀을 실은 상선들이 오가지만 그들이 먹을 식량은 없어 새우만 먹는 가난한 삶이 그려졌다. 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부족한 식량만이 아니라 거둬가는 세금이 날로 높아지는 것이었다. 흉년과 과도한 세금의 이중적 고통은 당시 제주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폐였다.

八道進奉走京師	팔도에 바치고 서울로 오리자면
一日幾馱生乾鰕	하루에도 생전복 마른 전복 몇 짐이나 내야하나.
金玉達官庖	없는 게 없는 고관의 주방에
綺羅公子席	비단옷 입은 공자들의 술자리에
豈知辛苦所從來	이토록 고생스러움을 어찌 알리오
纔經一嚼案已推	겨우 한번 씹은 뒤 상을 물리겠지.
潛女潛女爾誰樂吾自哀	잠녀여, 잠녀여! 그대들은 즐겁다지만 나는 슬프니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	어찌 사람 목숨 장난치며 내 입과 배를 채울 수 있으리.
嗟吾書生海州青魚亦難喫	오호라! 우리 서생이야 해주 청어도 얻어먹기 힘드니
但得朝夕一龔足	아침저녁 밥상에 부추나물이면 족하리. ⁵¹⁾

위 시는 <잠녀가> 중 제29구에서 제38구까지이다. 이 시는 제주의 상징적인 해녀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 신광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굶주린 고래를 만나면 그들 밥이 되리’[往往又遭飢蛟

50) 申光洙, 『石北集』 권7, 「耽羅錄」 <宿蘇安島>

51) 申光洙, 『石北集』 권7, <潛女歌>.

飢라는 구절은 해녀의 숙명적인 아픔을 표현한 것이다. 바다라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목숨 걸고 건져 올린 해산물이 고관대작이나 지체 높은 집안 자제의 술안주로 올려졌다가 그마저도 버려지는 육지의 현실을 드러내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이나 생선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해녀와 고관대작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임으로써 모순에 찬 현실을 드러내고 백성의 삶을 살피지 않는 벼슬아치의 삶을 비판한 것이다.⁵²⁾

그것을 지체 높은 육지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죽음을 직면한 경험은 사람의 내적 깊이를 더한다. 신광수가 제주에서 겪었던 45일간의 체험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전복을 보며 제주 해녀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대상을 보고 성찰하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의 차이는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신광수가 보이는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었기에 <잠녀가>의 창작이 가능했다. ‘그대들은 즐겁다지만 나는 슬프니」[爾雖樂吾自哀라는 구절은 해녀의 삶을 이해하는 신광수의 동화된 감정, 곧 공감이라고 하겠다.

신광수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登岳陽樓歎關山戎馬>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특히 악부체를 통한 백성의 정서를 읊음으로써 대상의 특징 포착과 意境의 사실적 묘사는 그의 이름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45일간 체류하며 적은 기록한 「탐라록」의 시편들은 제주라는 공간에서 느낀 이국적 풍물에 대한 소회, 왕명을 받고 파견된 관리로서의 사명감, 현지에서 느끼는 백성의 삶에 대한 인식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52) 이기현, 「石北文學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1996, 82-83쪽.

V. 맺음말

조선이면서도 바다 가운데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탐라는 조선 후기 사대부에게 미지의 공간이었다. 三聖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瀛洲라는 신선이 사는 전설상의 공간, 그럼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뱃길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絶島 등의 이미지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탐라를 더욱 신비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제주를 바라보는 육지인의 이해는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했기에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였다. 쉽게 왕래할 수 없었기에 실제 제주를 경험한 이들은 유배를 오거나 관리로 파견된 이들로 한정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제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제주에 대한 인식은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노인성이 보이는 신선이 사는 공간으로 이해하여 관념적 동경의 공간이거나 절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가기 싫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실제 경험을 통하지 않은 관념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국왕의 덕화가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공간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신광수의 사례에서 보듯 제주를 실제 경험한 인식의 태도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들에게 제주는 절도, 곧 자기 의지와 무관한 孤立無援의 공간이었다. 더구나 체류 내내 운무에 가려 멀리서도 볼 수 없었던 한라산은 선계가 아니라 답답함을 자아내는 대상이었을 뿐이다. 사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육지의 가족과 소식을 전할 주고받을 수 없는 제주는 말 그대로 ‘간헐 공간’이었다. 운신할 수 없다는 답답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혹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복합되어 병이 나는 간헐 공간이라는 인식하였다. 의지에 따른 체류가 아니라 간헐 지내며 유일한 소일거리가 시를 짓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시편에 사신으로서 또는 큰 바다를 바라보는 장대한 기개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문학작품에서는 言表보다 기술의 의도, 내재된 사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한시가 지어지는 근저에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문학사상이 반드시 자리한다. 이러한 인식과 사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변별되는 자기만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문학사에서 18세기는 개성주의 문학사상이 확고하게 자리하던 시기였다. 그들의 문학사상은 바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럼 점에서 신광수의 제주 경험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인식은 18세기 문학을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참고문헌

權尙夏, 『寒水齋集』
金昌協, 『農巖集』
金春澤, 『北軒集』
申光洙, 『石北集』
睦萬中, 『餘窩集』
李翼, 『星湖僊說』
李種徽, 『修山集』
李玄煥, 『蟾窩雜著』
任徵夏, 『西齋集』
丁範朝, 『海左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正祖, 『弘齋全書』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蔡濟恭, 『樊巖集』
李海朝, 『鳴巖集』
許穆, 『記言』
許薰, 『舫山集』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三國史記』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來裕洵 著, 高維國·張格 注釋, 『漢文典(注釋)』, 南開大學 出版社, 1993.

吳承學, 『晚明小品研究』, 江蘇古籍出版社, 1999.

권경록, 「李海朝의 濟州 관련 시에 나타난 ‘濟州’의 문화지형과 그 의미-
‘登漢擎山’과 ‘賦六十韻 記島中山川風俗’을 중심으로-」, 『열상고
전연구』 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새미오, 「고독한 공간, 제주에 대한 제 인식」, 『한문학논집』 37집, 근
역한문학회, 2013.

-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낙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39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박동욱, 「조정철의 「耽羅錄」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 박용만, 「李玄煥의 「瀛洲唱和錄序」 改作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 부영근,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考察」,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 손기범,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이한우, 김정희, 이원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7집, 영주어문학회, 2009.
- 송민경, 「조선후기 문인들의 제주명승 인식과 변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기현, 「石北文學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1993.
- 정 민, 「燕巖 朴趾源의 「伯姪贈貞夫人朴氏墓誌銘」 개작과정」, 『문헌과 해석』 13호, 2000.
- 정 민, 「「黃金臺記」을 통해 본 연암 산문의 글쓰기 방식」, 『고전문학연구』 20집, 2001.
- 정은진, 「蟾窩 李玄煥의 詩論」, 『대동한문학』 23집, 대동한문학회, 2005.

ABSTRACT

Awareness and Emotion of Jeju in Shin Kwang-soo's “Tamna-Rok”

Park Yong-man*

During the Joseon Dynasty, Jeju(濟州) was a place where myths lived. Jeju was an ideological space for landlords who could not approach, but for intellectuals who actually experienced Jeju, Jeju was a real space where they had to risk their lives. Jeju was a “confined space” for Shin Kwang-soo(申光洙), who was dispatched from Seoul in 1764 and stayed in Jeju for 45 days after being trapped in a storm. In the ‘Tamna-Rok(耽羅錄)’ left by Shin Kwang-soo while staying in Jeju, there are 49 poems along with the forewords of Shin Kwang-soo and Lee Ik(李翼). Originally, it was created by Lee Ik, Park Soo-hee, who went with Shin Kwang-soo, but in Shin Kwang-soo's writings, there were no other poems, only two prefaces and his own poems.

After returning to the mainland, Shin Kwang-soo showed the changhwa-rok(唱和錄) recorded in Jeju to the surrounding intellectuals and received the forewords of Mok Man-jung(睦萬中), Jeong Man-jo(丁範祖), and Lee Hyun-hwan(李玄煥). In addition, Chai Je-gong(蔡濟恭)'s name of the grave for him recorded this in detail.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hin Kwang-soo and his friends on land in their preface to seeing Jeju. In the land, the duality of the space where Shinseon(神申山) lives in, and the space that they don't want to go to, which can lead to death, appears. On the other hand, for Shin Kwang-soo, Jeju was both a

*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mote island and a space of an isolated employee that had nothing to do with his will. It was a "confined space" that could not escape even if it wanted to escape.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in which individualistic literary thoughts were firmly established, was no longer allowed to have an idea apart from reality. Shin Kwang-soo's perception of Jeju, which "Tamna-rok", about the experience of Jeju, which was difficult for even the surrounding intellectuals, to understand properly becomes an important record for viewing 18th century literature.

Key-words: Shin Kwang-soo, Jeju, Tamna-rok, confined space

논문투고일 2021. 2. 15.

심사완료일 2021. 3. 8.

게재확정일 2021. 3. 9.

